



군종주보

2025년 4월 27일(제1244호) 부활 제2주일 곧, 하나님의 지비 주일

발행 : 군종교구 홍보국 | 전화 : 02)749-1921, 군)900-7756 | FAX : 02)790-5768 | http://www.gunjong.or.kr | email : hongbo@gunjong.or.kr

말씀

“믿기를 버리시는 주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숨어 있던 다락방에 깜짝 등장하셨을 때 토마스는 거기에 없었습니다. 그가 돌아와, 흥분에 가득 차 있는 다른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서는 ‘드디어 이자들이 미쳤군.’ 하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한편으로는 자신에게 당신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지 않는 예수님께 속상했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굳건한 신앙을 가진 분들을 보면 부럽습니다. 저도 때로 의심하거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도 다른 신부님들이나 교우분들처럼 큰 신앙 체험을 하면 좋을 텐데...’ 하고 혼자 고민하며, ‘제 기도에도 적극 응답해 달라’고, 보다 확실한 메시지를 달라고 기도한 적도 있었습니다.

다른 한편에서 볼 때, 토마스는 소위 말하는 ‘대문자 T’일지도 모르겠습니다. MBTI 과몰입 시대가 비로소 지나가는 모양입니다만, 감히 토마스의 MBTI를 추측해 보자면, ESTJ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스승님과 함께 죽으려 갑시다.”(요한 11,16) 하고 호기롭게 나서서 말하는 것을 보면 E 같고요. 예수님의 구명난 손과 발, 옆구리를 만져보고서야 믿겠다는 걸 보니, 직접 자신의 감각과 경험에 의거(S), 논리와 분석(T)을 통해 판단(J)하는 것이 보입니다.(저는 전문가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정확히 경험하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다는 것이죠.

여드레 뒤에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은 토마스에게 당신의 오상(五傷)을 만져보라 말씀하십니다. 스승님께 대한 속상한 감정, 그분께 품었던 의심은 이제 모두 내려놓고 토마스는 성경 제일의 신앙고백으로 나아갑니다. “저의 주님, 저의 하나님!”

(요한 20,28) 예수님을 하느님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고 말씀하시면서도 토마스에게 눈높이를 맞춰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보고서야 믿을 수밖에 없는 우리 눈높이에 맞춰 또다시 우리에게 내려오시는 강생(降生)과 육화(肉化)의 순간입니다.

어쩌면 토마스에게 이런 방법이 더 필요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인생의 여러 순간 도저히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느님의 뜻을 찾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서는 여전히 우리가 당신을 믿기를 바라십니다. 당신을 믿고 따르기를 바라십니다. 여전히 당신께 대한 불신과 의심이 가득한 우리이지만, 그런 우리도 당신을 믿기를 바라십니다.

현대의 위대한 신학자 칼 라너는 신앙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앙이란 하느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일생동안 견뎌 내는 일이다.” 비록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막막한 순간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심을 믿읍시다. 의심하더라도 의심을 가지고 불신으로 나아가지 말고, 의심을 가지고 확신으로 나아갑시다. 우리가 믿기를 바라시는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내려오시어 도와주시고 알려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홍석진(요한보스코) 신부
타리대(해병대 제9여단) 성당 주임

제 1 독 시
화답송
제 2 독 시
복음 환호송

사도 5,12-16
◎ 주님은 좋으신 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묵시 1,9-11나.12-13.17-19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토마스야,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

복음
영성제송

요한 20,19-31
네 손을 넣어 못 자국을 확인해 보아라.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알렐루야.

통정부부 순교지 복지 이순이 루길다 옥중편지

2. 이순이(李順伊) 루갈다가

친언니와 올케에게 보낸 편지

주님을 배반한 자가 될까 하여 밤낮으로 염려하고, 함께 죽기를
눈물을 흘리며 청하였더니, 이 어찌 뜻한 바가 이처럼 빨리 올 줄 알았으랴!
이는 매우 지극한 은총이로구나.

세상에서는 다시 돌아가 권면할 곳이 없고,
생각나는 것이 천주님이시며 향하는 곳이 천국이라.

시월 십삼일에 이 죄인을 관청의 노비로 정하여 벽동(평안북도 벽동군)으로 멀리
유배시키기로 하였는데, 다시 관청에 데려가 자기들끼리 이러니 저러니 하면서,

『너희들이 천주를 공경하니 나라의 법에 따라 죽어 마땅하다.』 하더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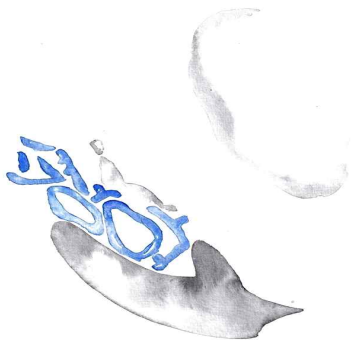
그러자 그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천주를 위하여 죽겠노라.』 하면서, 바삐
앞다투어 관원 앞으로 나가서 더욱 바짝 다가앉아, 수령에게 큰 소리로 말을 하기를

『나라의 녹을 먹으면서 왜 나라의 명에 순종하지 않느냐?』
하고 우리들이 여러 가지로 말을 하였다. <다음 주에 계속>

『통정부부 순교지 복지 이순이 루길다 옥중편지』 발췌, 진주교구 치명지신성지

복 음 록 상

- 배영길(베드로) 신부 / 예수회



평화가 그대와 함께

평화가 그대와 함께.

하여,

세상을 밝히시길.

그대가 가는 그곳에,

그대,

그대가 만나는 누구나

그 평화가 가득하길.

평화가 되시길.

05

▶ 배영길 신부님의 다른 묵상글도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QR코드를 확인해보세요!



상화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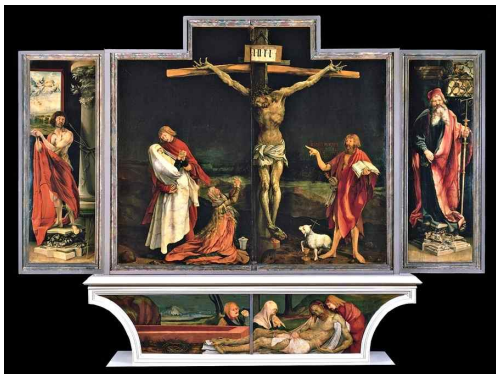
이젠하임 제단화



마티아스 그뤼네발트(Matthias Grünewald, 1470-1528)
1512~1516년경 제작 / 나무 위 유화, 376x668cm
프랑스 클미르

그림 전체 조망도에서 알 수 있듯이, 여러 겹의 작품들로 이루어져 다층적인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매우 복잡한 작품으로, 오늘 소개되는 작품은 본 작품 한쪽 패널에 그려져 있다.

특별한 날에만 펼쳐져 안쪽 작품들을 볼 수 있는 이 제단화는 우선 먼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데, 상처와 수난의 고통으로 일그러진 얼굴과 몸 등, 예수님의 수난을 극사실적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적으로 표현하였다.



예수님 세부도 →
한 번 더 열면, - 마치 영혼 혹은 유령처럼 보일 정도로 - 눈부시게 빛나며, 몸의 아래에서 위로 갈수록 점점 투명해져 예수님의 얼굴 정도에 이르면 뒷배경이 훤히 보일 정도로 투명해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수 있다.



이 제단화는 이 당시 시한부의 삶을 살아가는 중증 병자들을 위한 병원 성당을 위한 제단화로, 많은 신자들은 이 그림을 보면서 현실 속 자신의 고통보다 더한 수난을 겪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부활한 예수님처럼 천상에서의 삶을 목상하고 기도하였다.

김은혜(엘리사벳)

교 구 소 식

군중주보회 회원을 위한 미사 - 부활 제2주일: 장혜부대 김진수 신부

◆ 교구장 동정

- 해군교육사(해교사) 성당 사목방문
때: 4월 27일(주일)
- 주교 현장 체험
때·곳: 4월 29일(화), 비정규 노동자의 집 '꿀잠'
- 한국가톨릭원목자협회 춘계상임위원회
때·곳: 4월 30일(수) 15:00, CBCK

◆ '군중의 시간' 안내

- 때: 주일 오후 3시 ~ 4시
- 평화방송 라디오(105.3Mhz, 서울)
- 군중교구 홈페이지와 평화방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청취가 가능합니다.
- 많은 청취 바랍니다.